

News

5대 은행 12월 가계대출 증가세 확 꺾여...신용대출 1.6조원 감소

연합뉴스

2020년 12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 확 꺾여... 12월 말 가계대출 잔액 709조 529억원으로 11월보다 3,649억원 증가
주담대 증가세는 비슷했으나 개인신용대출이 1조 6천억원 가까이 감소...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영향 및 상여금 등으로 대출 상환했기 때문

5대 금융수장들 "디지털-플랫폼 초혁신, 빅테크에 맞서자"

동아일보

5대 금융지주 CEO들, 2022년 신년사에서 직접적인 위기의식 표현해... '디지털'과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
디지털 금융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플랫폼 기업으로 발빠르게 전환할 것을 강조... 또한 WM이나 기업금융 같은 기분을 강화해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도 내놓아...

3년치 월급 받고 떠난다...하나·신한은행도 희망퇴직 실시

한국경제

하나은행,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 대상으로 3일부터 7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받아... 월 평균임금 최대 27~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수령
신한은행, 연초 추가 희망퇴직에 나서... 연2회 희망퇴직이 은행권에 점차 확산되는 추세...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한 구조 효율화와 조직 분기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

카카오뱅크, 1분기 주담대 출시...실거래 테스트 나선다

이코노미스트

카카오뱅크, 주담대 상품 출시에 앞서 실제 주담대를 이용할 외부 고객을 선정해 비공개 베타 테스트 진행 발표
지난해 말까지 내부 임직원 대상으로 프로세스 점검 중심의 CBT 진행... 올해 1분기 중 주담대 서비스 선보일 계획

국내 보험사들, 올해도 화두는 '디지털 전환'

조선비즈

올해 보험사들의 신년 계획 화두는 '디지털 전환'... 디지털 관련 분야를 신설하거나 빅테크 기업과 손 잡는 방법 등으로 관련 상품을 선보일 계획
MZ세대 붙잡고 디지털 시장 개척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 될 것으로 보여... 다만 온라인 특성상 복잡한 상품 판매는 용이하지 않아 관련 부분 개선 필요

또 쏟아지는 종신보험... 교보·농협생명, 신상품 내놓는 이유는?

머니S

생보사들, 연초부터 종신보험 신상품 속속 출시... 교보생명과 NH농협생명, 각각 저해지 환급금형 종신보험 등 신상품 출시해...
IFRS17에 대비해 자본확충 대비라는 평가.. 저축성보험은 회계상 부채로 계산되기 때문에 보장성보험 판매 비중 증가하는 중

증권사 CEO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 전망"... 신년사 화두 '디지털과 고객'

머니S

증권사 CEO들, 신년사를 통해 '고객'과 '디지털 혁신' 강조... 코로나19 지속과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업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
특히 올해 디지털 서비스 역량이 증권업계의 성장 기준으로 보여... MZ세대 고객 확보 또한 중요한 목표

"빚장걸고 고객 빼앗고"...증권업계, 새해 리테일 쟁탈전 나서

아시아투데이

투자자들의 CFD에 대한 관심 잇달아... 2020년 1월 ~ 10월 간 개인 전문 투자자 등록 건수가 21,656건에 달해...
메리츠증권 이달 17일 서비스에 이어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리테일 고객 끌어들이기 집중... 불안한 변동성 속 투자자 이탈 잡기 위한 목적... 증권사들의 혜택 경쟁 진행 중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